

-고자

~하고자 — 의도, 목적(격식체)

의도를 격식 있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. 연설, 보고서, 공문에서 -(으)려고가 바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작 동사	-고자	알리다 → 알리고자
ㄴ 어간은 ㄴ 유 지	-고자	만들다 → 만들고자
행동을 알릴 때	-고자 하다	말씀드리고자 합니다
같은 주어	필수	자신의 의도
형용사	불가능	행복하고자는 쓸 수 없음
구어 표현	-(으)려고	알리려고

■ 언제 쓰나요

-고자는 동작 동사 어간에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ㄴ도 그대로 남으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의도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다.

두 절의 주어가 같으며, 보통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를 나타냅니다: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-고자 하다는 격식 있는 말에서 쓰는 형태로,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공손하게 알리는 방법입니다: 말씀드리고자 합니다, 여쭙보고자 합니다.

뒤에 명령이나 청유가 올 수 없습니다. 또 편한 대화에서는 의례적으로 들리므로, 그런 자리에서는 -(으)려고가 자연스럽습니다.

■ 예문

- 1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2 변경 사항을 알리고자 안내문을 보냅니다.
- 3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.
- 4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5 몇 가지 여쭙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.
- 6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.

■ 비교

-(으)려고
의미는 같지만 문체가 다릅니다. -(으)려고는 일상적인 표현이고, -고자는 문장을 격식체나 문어로 만듭니다.
알리려고 연락했어요. (구어) / 알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. (격식체)

-기 위해서
둘 다 목적을 격식 있게 나타내지만, 위해서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목표에도 쓸 수 있습니다. -고자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에만 씁니다.
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. (조언) / 알리고자 합니다. (나의 의도)

-고자 하다
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알리는 정형화된 표현입니다. 발표나 격식 있는 편지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.
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/ 여쭙보고자 합니다.

■ 주의

- ✗ 행복하고자 노력합니다.
- 행복해지고자 노력합니다.
의도는 행동이어야 합니다. 형용사는 먼저 -아/어지다를 붙여야 합니다.
- ✗ 알리고자 연락하세요.
- 알리기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고자 뒤에는 명령이 올 수 없습니다.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
- ✗ 야, 나 밥 먹고자 나가.
- 야, 나 밥 먹으려고 나가.
-고자는 의례적인 표현입니다. 편한 대화에서는 -(으)려고가 자연스럽습니다.